좌담 석방된 학생들을 만나

감옥, 반성 통한 단련의 場

– 사회: 바쁘신 중에도 좌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감생활에 대해 듣고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 구속학우들에대해 경희학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찬호씨 부터 구속사유와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요.

▲오: 오세은 민정당사무실 타격을 주동 했다는 혐의로 수배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24일 체포되었습니다.

▲심: 저는 지난 89년 11월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90년 반민자당투쟁을 10여차례 주동했다는 혐의로 3월 15일자로 수배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광주에서 집회와 시위및 화염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언도 받았습니다.

▲김: 지난 89년 투쟁본부장으로 일하다가 9월 21일 경기도경에서 수배가 떨어 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수배생활 끝에 작년 10월 14일 경원대에서 열린 '노태우의 매국적 방미규탄대회' 도중 검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20일 자로 집행유예 5년, 실형 1년 6개월을 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고등법원에 6개월 감형되어 1년을 선고받고, 8월 초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 되었으며, 지난 10월 19일 출감했습니다.

–사회: 세분들의 구속사유와 기간을 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고민으로 다가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심: 처음에는 경희학우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위치에 대한 자각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인식해 내는 일과, 민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아나가야 겠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섰습니다.

▲김: 저는 무엇보다도 밖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감방에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접견투쟁' 등을 벌였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힘들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후배들의 편지가 저에게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심: 저에게도 학우들의 편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우들의 편지를 보면서 비록 지금은 격리되어 있지만 저의 애정과 정신만은 항상 학우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편지 한장 한장은 진정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사회: 어려운 수감생활을 이겨나가는데 학우들의 관심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험자로써 동료나 후배가 구속 되었을 경우 당부해 주고 싶은말씀은.

▲오: 비록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심: 식민지 조국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우리를 묶는 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적 굴레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방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시한번 결의의 수준을 높여야 할것 입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주인된 삶을 살아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김: 앞으로도 구속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경희학우들은 그들의 동지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것 입니다.

올해 초 구속학우들의 권익보호와 감옥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구속자 동지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겠습니다.

–사회: 감방에서 대인관계는 어땠습니까.

▲김: 처음들어온 동지들과 세미나도 하고 생활수칙을 같이 정하며 보람있게 생활했습니다. 특히 세미나를 통해서 밖에 있는 학우들 못지 않게 학습과 토론을 했습니다.

▲심: 시국사범들과는 같이 생활할 수없었지만, 책을 돌려보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김: 덧붙이자면 수간생활 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책이 태백산맥과 장길산이었습니다.

민족문학 최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태백산맥의 경우 나 자신이 나약해 지는 것을 막아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들을 방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들에게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여러분들께서는 총학과 구속자 동지 협의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후 자신의 전망에 대해 경희 2만학우에게 밝히고 싶으신 것은.

▲김: 과거의 정치투쟁은 돌과 화염병을 가지고 온몸으로 항거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대중들에게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수있는 자체역량을 키워야 하며, 뜨거운 가슴에 못지않게 냉철한 이성과 머리가 필요합니다. 좀더 많은 학습과 실천투쟁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것이며, 이 나라의 구국운동에 복무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사안들이 많겠지만 구속자권익과 양심수석방, 국보법철폐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 저는 학생운동 경험을 후배학우들에게 남김없이 전파해 주고 이후 생산현장으로 들어가 생산대중과 함께 보다 큰 인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 그간 미진했던 나의활동을 극복하고 졸업전까지 당면과제와 결부시켜서 구속자들의 인권투쟁, 양심수의 지원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그 과정속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투쟁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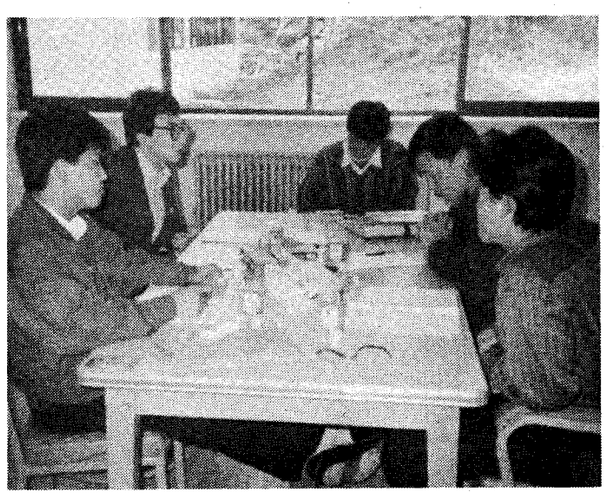
▲심: 이 자리가 단순히 우리들의 속풀이 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순간에도 칙칙한 감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양심수와 민중에게 실질적 해방을 줄 수 있는 투쟁을 결의하고 앞날을 다지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사회: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이야기가 오간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데로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구속자들이 생길것입니다. 이제 구속된 학우들을 위해 많은 관심 뿐만 아니라 변혁운동에 매진 해야 할 것 입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학생운동 관련 구속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좌담에서는 석방자들의 체험기를 통해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誌〉

참석자
김정훈〈사회대 행정·4〉
오찬호〈입학·4〉
심민성〈정경대 무역·4〉
사회: 조인성記者
기록·정리: 이지환 記者



심 "학우들의 격려 편지 한장에도 눈물 겨워"

'구속자 동지 협의회'주도 석방 투쟁 전개 김

오 "장소 관계없이 우리의 투쟁은 계속 돼야"

선거철 맞는 경희인의 자세

데스크 칼럼

최 상 호
〈본보·기획 학술부장〉

대학에도 침투한 왜곡된 "선거문화"

I. 가을캠퍼스를 달구는 선거열기

어느덧 가을도 깊어가고 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하루가 다르게 서늘해지는 대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낙엽에는 한 해를 마감하느라 분주한 민초들의 숨결이 아로새겨져 있는 듯 하다.

예외없이 캠퍼스에도 가을색이 진하게 채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을이 주는 정서'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선거가 다가왔다. 형형색색 갖가지 홍보물이 나붙고 자치기구의 입후보자들의 열띤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들로 대화의 꽃을 피운다. 기성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른바 '선거열풍'이 가을의 환경적 변화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제도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일컬어지지만 반면에 금권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수단이 되는등의 양면성을 가진다.

이러한 양면성은 제도권 정치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학문의 상아탑'이자 '준사회'인 대학에서도 통용되는 '하나의 일반론'이라 하겠다.

II. 제도정치권과 대학의 선거

앞서 밝혔듯이 선거는 '양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객관적 현실은 오히려 '모순의 극명화'에 무게중심이 놓일정도로 본래의 위상이 왜곡되어 있다.

옛 선인은 정치에 관한 말만 들어도 귀를 씻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정치들은 귀를 씻는 것만으로 불충분할 정도로 탐욕과 금력에 얼룩져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제도권 정치에서의 '당선'이란 곧 '금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발붙인 사람중에 그 누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반대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입후보자가 당선이라는 명예를 얻을때 필요한 요소를 비록 도식적으로나마 살펴보면, 대중간부로서의 품성및 건전한 세계관과 뚜렷한 목적의식, 이에 준하는 실천의지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와같은 '이상적인 요소'는 그저 '이상'에서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정 당선되어야 할 사람이 악성 루머나 타후보의 물량공세로 인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나머지 결국 입후보자에게 타 후보만큼의 자금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기반은 분명 '배움의 터'인 대학이다. 비록 한국의 대학이 자본주의라는 물적기반위에 존재한다고 해도 '대학 고유의 성역'마저 오염된 탁류로 범람하게 방치해둬서는 안된다.

III. 선거철을·맞는 경희인의 자세

몇해전 부총학생장으로 선출된 이가 당선직후 사퇴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준수한 외모'로 일단 많은 표를 얻는데에만 공헌(?)을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역할이었다고 한다. 비록, 정확하게 내막을 확인할 길은 없었으나 대중간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초래한 웃지못할 일화였다.

결국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평소에는 선거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다가 선거철만 되면 누군가를 '찍어야'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별 고민없이 그를 뽑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오류는 현재의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바로 나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주체적 의식속에서 싹튼다.

따라서 입후보자들에게도 자신의 의지를 우선시 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대중을 위해 헌신할 줄 하는 인물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을 갖출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혼탁한 바깥 세태만을 탓할 것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성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라는 명제가 요즘들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옴을 느낀다.

변혁운동의 나팔수

서울지역 대학 언론 협의회 발족식을 보고

지난 31일 서강대 삼민광장에서 '서울지역 대학언론협의회(이하: 서언협발족식'이 개최되었다.

3백여명의 서울지역대학언론인이 모인 가운데 발족한 서언협은 기존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전국대학방송기자연합 등 매체별연합의 오류를 극복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교양사업과 선전연대활동 등을 벌여 나갈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서울지역 대학언론인연합건설준비위원회'결성 이후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중해방 실현을 위한 선전활동을 한다'라는 건설 취지에 입각해 다양한 선전활동을 벌여 왔다.

서언협은 서울지역 각 대학의 언론협의회와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서울지역 교지편집인연합회, 서울지역 영자신문연합회, 경기, 인천지구 대학방송연합등 4개의 매체연합으로 구성 된다.

한편, 이날 서언협 제1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한기 (서강대·사학·4)군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언론 선전일꾼들의 힘찬함성과 굵은 팔뚝을 보니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고 당선 소감을 일축했다.

그리고 본행사 마지막 순서인 발족선언문을 통해 "서언협의 발족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더 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4천만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변혁의 나팔수로서, 40만 청년학도의 자주적 삶을 위해 선전하는 해방의 전파자로서, 서언협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발족의 의의를 밝혔다.

〈 방현기 記者 〉

구속학생들에게 애정의 편지를

▲최문철(국문·87): 9월22일 한강성심병원에서 '금강노조 집단방화살상 규탄대회'때 연행.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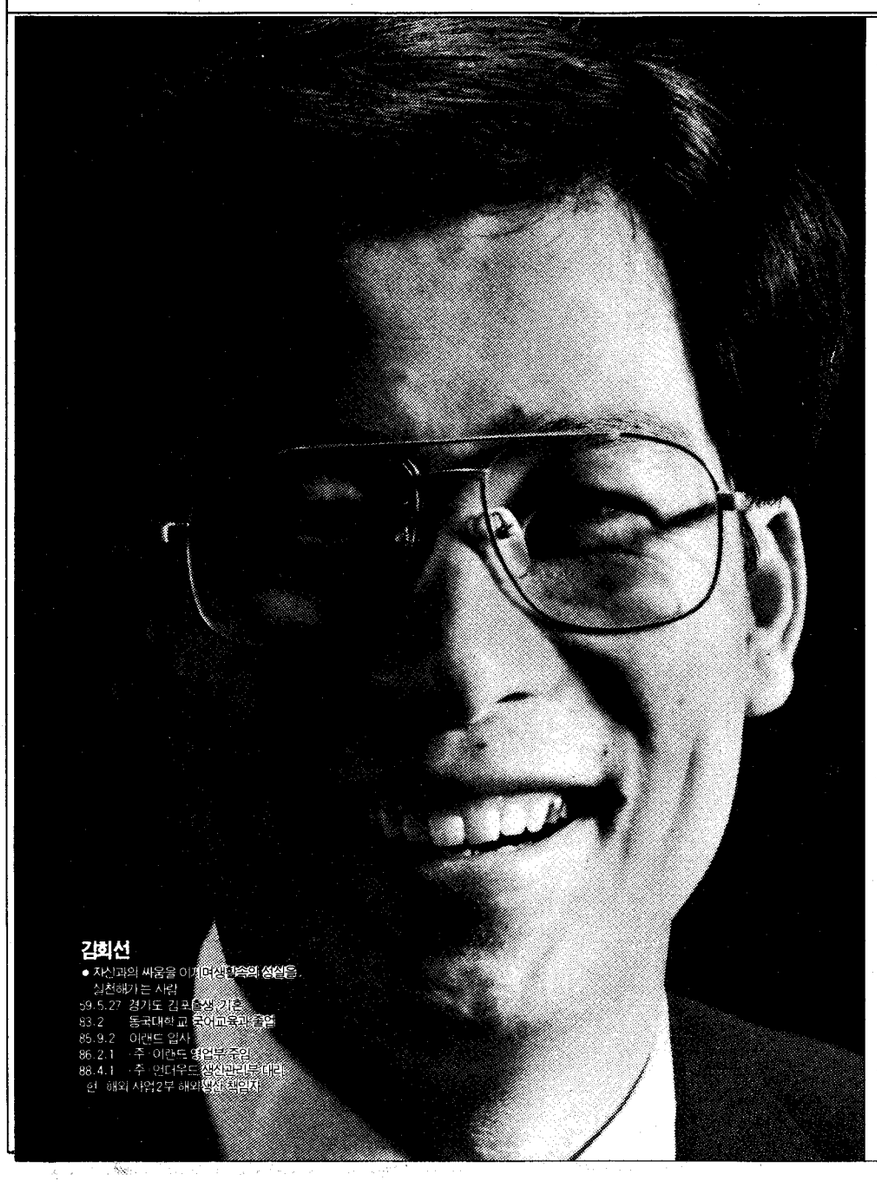
▲서병식(사학·89): 10월13일 보라매집회 참석도중 화염병 소지혐의로 구속,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송재영(문리대, 영문·90): 10월13일 보라매집회 참석도중 화염병 소지혐의로 구속.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권종춘(경제·86): 5월7일 민자당사 점거농성으로 구속.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이기헌(사회과학대, 무역·87): 8월1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

x 성동구치소: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
x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1번지
x 수원교도소: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63번지
x 영등포구치소: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SERIES-③ 성실편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랜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며 남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가 바로 이랜드 사람입니다.

매년 100%이상의 성장, 대기업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입사원 선발, 5년 후에는 10대 기업군에 진입할 것이라는 포부는 '신화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왔으며, 지금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신화는, 직장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완성시켜나가는 인생의 학교라고 생각하며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이다.
2.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는 곳과 같이 행한다.
3.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개발에서는 자유인이지만 양심과 법에 있어서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4.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발휘하여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5. 남과의 싸움보다 나와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목표이다.
6. 자신이 지키지 못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7.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새벽시간을 활용한다.
8. 절약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는다.
9. 점심 도시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10.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주변은 내 손으로 쓸고 닦는다.
11. 금주, 금연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실의 모습입니다.

노력없이 얻어지는 댓가는 드물며 설혹 있다 할 지라도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이익을 내고 기업을 성장시켜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올바른 기업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에 땀흘리지 않은 댓가는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이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다른 성실함입니다.

오늘도 이랜드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남과 다른 성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기쁨을 통하여 인생의 만족을 얻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30년을 함께 일해갈 곳, 그곳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가족은
6차례에 걸쳐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90년도 하반기 3차 인원선발광고를 게재하겠습니다.

이·랜드

(주)이·랜드●(주)브렌따노●(주)언더우드●(주)헌트●(주)리틀·브랜●(주)제롤라모●(주)테레지아●(주)쉐인●(주)스코필드●(주)로이드●(주)브렌어패럴●(주)언더우드 건설●(주)레오 페레